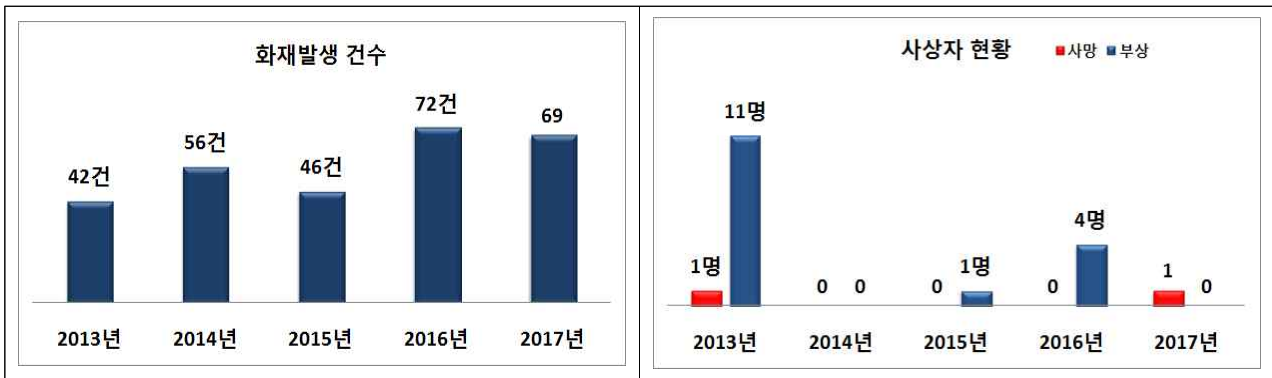


11월 주요재난 안전사고 예보

동절기 화목보일러(난로) 화재 주의보 !

□ 11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 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불씨가 바람에 날리거나 연통이 과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□ 화목보일러·난로 화재 현황(2013~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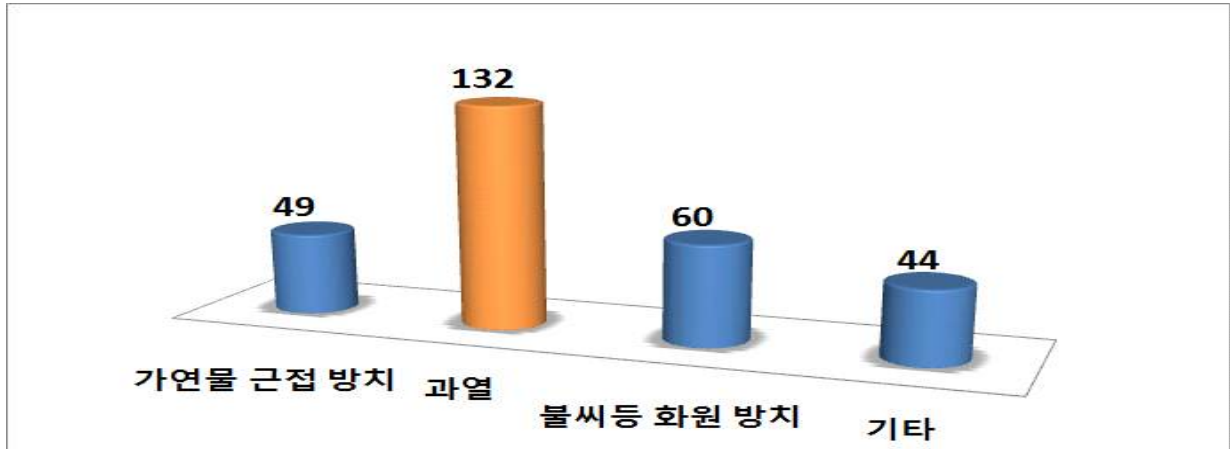


○ 최근 5년(2013~2017년)간 총 28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, 이로 인해 인명피해 18명(사망 2, 부상 16), 재산피해는 29억 5천 6백 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(2013~201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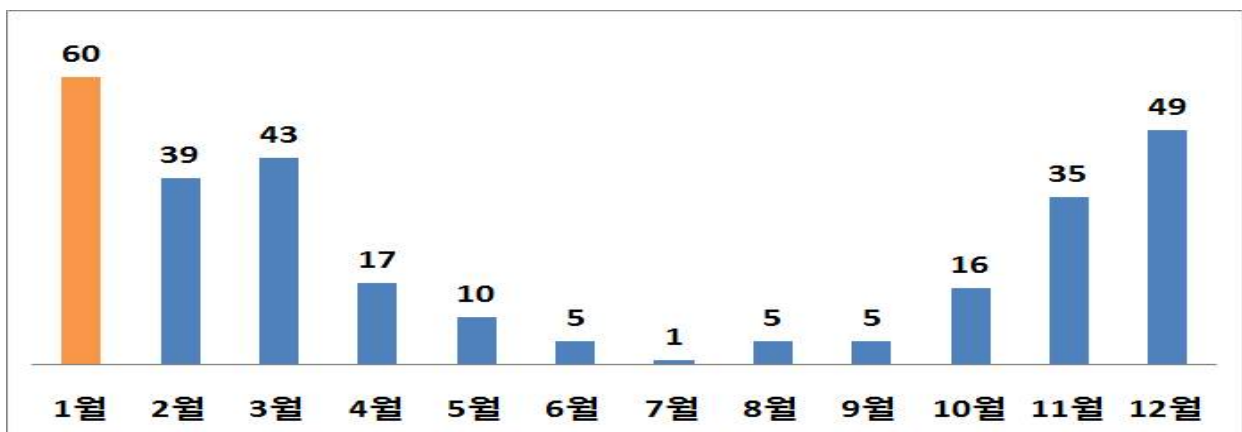
구분	건수	인명피해			재산피해 (천원)
		소계	사망	부상	
계	285	18	2	16	2,956,387
2013년	42	12	1	11	412,060
2014년	56	0	0	0	817,560
2015년	46	1	0	1	476,578
2016년	72	4	0	4	672,196
2017년	69	1	1	0	577,993

□ 화재원인별 분석(2013~2017년)



-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화목보일러(난로) 자체 과열과 보일러에 설치된 연통과열로 인한 화재가 46.3%(132건)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연통 주변 마감재를 불연재가 아닌 목재·합판 또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는
- 연통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보일러에서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씨 등이 비화하여 발생한 경우가 21.1%(60건)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를 처리하는 부분은 산불로도 변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, 다음은 보일러(난로) 주변에 종이박스, 나무 등 가연물 방치하여 발생한 경우가 49건, 전기적 요인 및 정비 불량 등 기타 44건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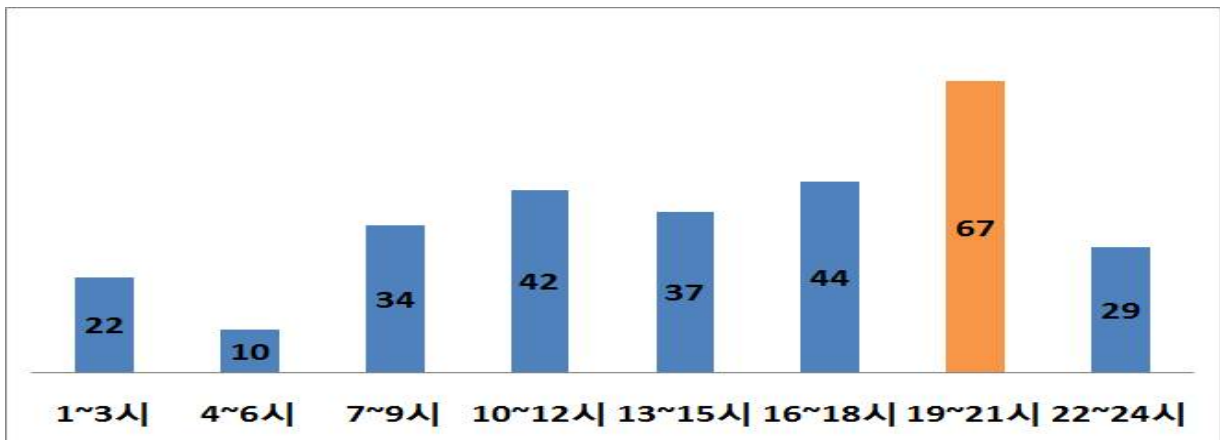
□ 월별·장소별 발생현황(2013~2017년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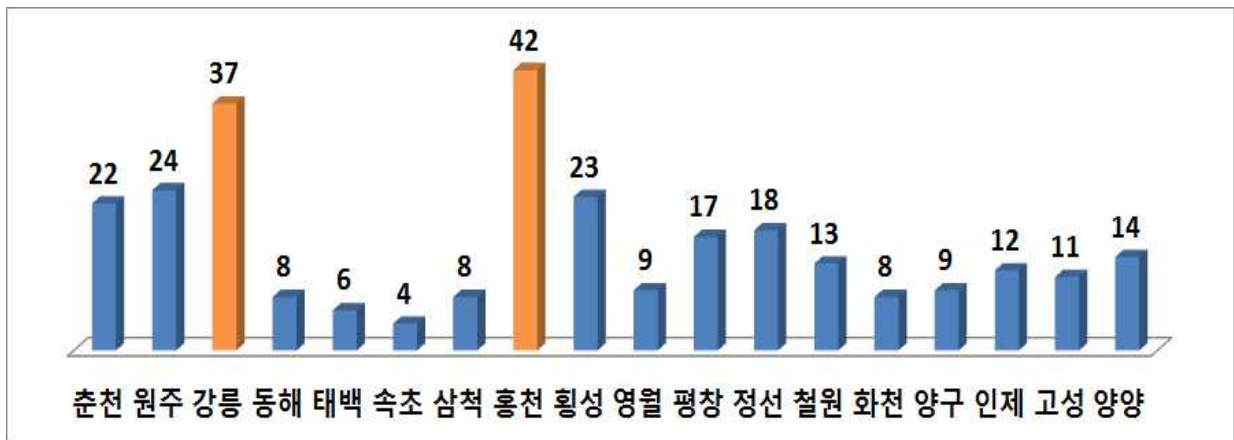
○ 월별로 살펴보면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장소별로는 주택이 73.3%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.

□ 시간대별 발생현황(2013~2017년)



○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사용빈도가 높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지역별 발생현황(2013~2017년)



- 지역별로 보면 홍천군 34건, 강릉시 37건, 원주 24건, 횡성 23건, 춘천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□ 주요화재 사례

2018. 10. 19(금) 10:46경 홍천군 동면 / 화목보일러 연통과열 추정/ 주택일부 소실/ 110천원의 재산피해

2018. 10. 1(월) 01:22경 삼척시 도계읍 /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근접 배치 / 주택일부(195m²) 소실 / 40,694천원의 재산피해

2018. 1. 30(화) 11:40경 평창군 평창읍 /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근접 배치 / 주택소실/ 750천 원의 재산피해

□ 화재예방 요령

-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.6m이상 떨어지고, 건물 밖으로 0.6m이상 나오도록 설치하고 가연성 벽·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부분은 구조토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.
- 보일러실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- 화목보일러 본체 및 연통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 않도록 주의하고, 연통안에 타르와 진액, 재가 쌓여 온도 300℃ 이상이 되면 발화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준다.
- 보일러 주변에 불씨가 있는 재를 방치할 경우 바람에 의해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물로 완전히 소화한다.
-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므로 보일러를 가동한 경우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말고 수시로 주위를 감시한다.
-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와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.
- 한꺼번에 많은 양의 나무를 때면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- 화목보일러 점화 촉진제(휘발성)를 인근에 방치하여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.